

와당(瓦當)문양에 관한 연구

이 일 지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I. 서 론

와당(瓦當)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암막새기와, 수막새기와라고 불렀다. 암키와를 바닥에 깔고 수키와로 그 이음새를 덮어서 용마루에서 처마까지 기와끝이 나게 된다. 기와를 입혀 내려온 끝을 암키와는 호형(弧形), 수키와는 원형으로 막는다¹⁾. 기와로 지붕을 덮고 그 끝을 막게 되면서 와당의 문양예술은 시작된 것이다. 와당의 문양에는 그 시대를 살고 간 사람들의 꿈과 현실이 담겨 있다. 그들이 꿈꾸던 삶,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약호(略號)들이 그 속에 살아 숨쉰다. 와당은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시대의 미를 마음껏 발산한다.

본 연구는 중국 고대의 와당을 모양과 문양에 따라 모아서 시대적 변모과정을 논하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와당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기와가 건물에 장식된 것은 서주(西周) 시대부터이지만 예술적 문양이 본격화 된 것은 전국시대부터이다. 따라서 대상 시기는 전국시대부터 한나라와 북조를 거쳐 당나라에 이르는 1천 년 간으로, 중국의 와당을 한자리에서 볼 것이다.

연구 의의는 앞으로 직물이나 염색디자인의 새로운 문양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후기 박제가의 문집에 <진한와당가(秦漢瓦當歌 옛)>란 작품이 있다. 그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다.

금석문이 나오자 와당이 뒤이으니
인간 세상 아득하여 이 또한 옛것일세. ...
오늘날 소전(小篆)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흔 개 와당문(瓦當文)을 읽어야 하리.²⁾

옛 선조들은 중국에서 구해온 와당 또는 그 탁본 하나하나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아껴 어루만지며 그것으로 금석 서화 공부의 재료로 삼았다. 이런 옛 사람들의 마음처럼 와당 예술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중국 고대 와당 문양

전국시대 각 나라들은 종교 관념이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상이한 문양을 와당 위에 올렸다. 제나라의 와당³⁾에는 언제나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아래 동물이나 사람이 짝을 이뤄 등장한다. 나무는 사수(社樹)로 세계의 중심을 나타내고, 그 아래의 동물과 사람은 그네들의 삶을 반영한다. 이들은 주로 반원형의 와당을 사용했다. 북방의 연나라는 쌍룡과 짐승 얼굴을 새긴 문양을 좋아했다. 진나라는 사슴이나 범, 늑대, 개 등 동물들의 문양을 선호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구름무늬 문양도 즐겨 사용했다. 이러한 구름무늬는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도 조금씩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한무제 이후의 와당⁴⁾에서는 청룡·백호·주작·현무·봉황·도칠(饕餮)과 같은 상상의 동물들과 함께 길상축원의 말을 담은 문자와당이 급격히 증가한다. 문자와당도 천추만세와 같은 축원의 말에서, 궁궐의 기능과 명칭을 적은 것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기쁘다. 오랑캐를 무찔렀네(樂戰破胡)’, ‘홍노와 화친하다(單于和親)’와 같은 와당을 통해서 그 시대의 풍경까지 그려볼 수가 있다. 수없이 많은 와당⁵⁾들이 비슷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지만 똑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전국시대에 성행했던 반원형 와당은 후기로 오면서 원형으로 바뀐다.⁶⁾ 하나의 원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해 가는지를 통해, 그 시대정신과 미의식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II. 삼국시대와 중국 고대 문양 비교

중국 고대 와당문양은 주제나 표현에 있어 매우 자유롭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자가 그림에서 출발하여 와당에서도 문자가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반대로 삼국시대의 경우 주제와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교와 함께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와당의 표현예술은 종교적인 관념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와가 건축문화로 탄생하면서 현실 속에서 이들의 꿈과 삶을 꾸밈없이 반영한 것이고 우리의 경우는 종교문화로 들어와 발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중국에서 보여지는 시대적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형태나 문양에서 시대적 차이가 뚜렷하다. 고구려의 장군총, 신라의 황룡사지, 백제의 미륵사지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각 국의 특징이 확

연히 나타난다. 백제 위덕왕 35년(588)에는 일본에 와박사(瓦博士)를 파견할 정도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와당은 조선시대에까지 사용되어 시대에 따라 그 특징을 나타낸다. 고구려의 와당은 한, 낙랑의 영향을 받아 자방 대신 반구형의 돌기가 있고 면을 몇 개의 선으로 나눈 다음 문양을 배치한다. 연판에 문자나 인동, 귀면을 배치하기도 한다. 귀면상은 중국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백제는 지리적으로 중국 남조와의 문화적인 연관이 깊었고, 불교로 인해 연판을 8판으로 구획하여 문양을 배치시켰다. 연판의 표현은 고구려에 비해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신라는 통일신라 시기 가장 아름다운 문양의 절정을 볼 수 있다. 연판문과 함께 이 시대에 나타난 보상화문이 서로 결합되거나 단독으로 표현되었다. 기린이나 사자 등 동물문이나 귀면문, 이와 어우러진 당초, 구름, 꽃무늬 등이 나타난다.

IV. 결 론

이상으로 중국 고대의 와당문양을 통해 시대적 변모과정과 중국 고대인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의 와당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서술하였다. 중국 전국시대 각 나라 등은 종교관념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문양의 형식과 원리가 다양하였다. 특히 문자문에 속하는 길상문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었다. 동물문은 성수(聖獸)로서 그 신령스러움이나 힘찬 정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삼국시대는 중국과 다르게 불교문화의 한 갈래로 와당 예술이 꽃피웠기 때문에 표현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중국과 다른 정교한 고구려의 귀면문이나 통일 신라의 아름다운 보상화문은 우리만의 새로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후 우리의 와당 예술은 하강곡선을 이루지만, 현재에 그 빛이 살아 가슴속에 옮겨오듯이 현대적인 의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신문화 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p. 152.
- 2) 박제가. 진한와당가(秦漢瓦當歌).
金石畢出瓦繼之 人世茫茫亦云久 ...
今之學爲小篆者 獨此四十五瓦當文.
- 3) 安立華(1998). 齊國瓦當藝術. 중국: 人民美術出版社.
- 4) 西安古舊書店. 秦漢瓦當文原拓集. 개인소장.
- 5) 張文彬(1999). 新中國出土瓦當集錄. 중국: 西北大學出版社.
- 6) 정민(2002). 와당의 표정. 열림원, pp. 8~9.
- 7) 趙力光(1997). 中國古代瓦當圖典. 중국: 文物出版社.